

잡아함 130. 구대사경

날짜: 3월 11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9>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다섯 가지 쌓임을 끊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큰 스승을 구해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다섯인가. 이른바 물질의 쌓임과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쌓임이니 이 다섯 가지 쌓임을 끊고자 하면 마땅히 큰 스승을 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여 밭들어 행하였다.

‘마땅히 끊어야 하는 것과 같이 알고 버리며, 쉬고 버리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큰 스승을 구하는 것과 같이 훌륭한 스승·스승을 따르는 사람·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훌륭하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차례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통한 사람·널리 통한 사람·원만히 통한 사람·인도하는 사람·완전히 인도하는 사람·설법하는 사람·널리 설법하는 사람·차례로 설법하는 사람·바른 사람·짝하는 사람·참 벗·친하는 사람·불쌍히 여기는 사람·슬퍼해 주는 사람·이치를 숭상하는 사람·위로해 주는 사람·즐거움을 숭상하는 사람·접촉하기를 숭상하는 사람·위로하기를 숭상하는 사람·하고자 하는 사람·정진하고자 하는 사람·방편이 있는 사람·부지런한 사람·용맹스러운 사람·든든한 사람·굳센 사람·능력이 있는 사람·알뜰히 하는 사람·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사람·굳게 가지는 사람·항상 익히는 사람·방일하지 않는 사람·화합하는 사람·생각이 있는 사람·기억하는 사람·깨달은 사람·아는 사람·밝은 사람·슬기로운 사람·받는 사람·깊이 생각하는 사람·행이 깨끗한 사람·<곳>을 생각하는 사람·바르고 부지런한 사람·신통을 가진 사람·<근>을 고루 가진

사람·힘을 가진 사람·각분을 가진 사람·도분을 가진 사람·그치는 사람·관찰하는 사람·<몸>을 생각하는 사람·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또 한 그와 같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